



신지애

코오롱-하나은행챔피언십 오늘 개막

신인왕 출신 자존심 대결

신-박, 첫날 한 조에 편성

“제 우상인 박세리 선배와 함께 플레이 하게 돼 영광입니다”

27일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골프장에서 막을 올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오롱-하나은행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박세리(29·CJ)와 같은 조로 편성된 ‘슈퍼 루키’ 신지애(18·하이마트)는 마냥 감격스럽다는 표정이다.

신지애는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상급, 다승, 시즌 평균타수, 올해의 선수상 포인트, 신왕 포인트 등 거의 전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역대 최강의 신인’이다.

신인왕은 물론 상급왕과 올해의 선수는 이미 확정된 것이 다름없다.

국내 상급랭킹 1위 자격으로 이 대회 출전권을 받은 신지애는 2003년 안시현(22), 지난해 이지영(21·하이마트)에 이어 LPGA 투어 비회원으로 이 대회 우승을 차지해 LPGA 투어 직행 티켓을 따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

26일 프로알 대회에서 나서기 앞서 “코스가 은근히 까다롭고 날씨가 변덕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우승을 노려보겠다”는 신

지애는 특히 박세리와의 동반 플레이가 우승 못지 않게 기쁘다고 말했다.

27일 오전 10시44분 1번홀에서 티오프하는 박세리와 신지애의 또 한 명의 동반 플레이어는 작년 LPGA 투어 신인왕 플라 크리머(미국)로 정해졌다.

마침 박세리가 한국여자프로골프와 LPGA 투어 신인왕 출신이기에 이들 3명은 공교롭게도 ‘신인왕’조로 불리게 됐다.

신지애와 함께 2승을 올렸고 상급랭킹 2위를 달리고 있는 ‘신데렐라’ 후보 박희영(19·이수건설)은 작년 이 대회 우승자 이지영, 그리고 소피 구스타프손(스웨덴)과 함께 10시55분 1번홀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올해 LPGA 투어에서 2승을 수확한 김미현(29·KTF)은 LPGA 투어 신인왕인 이선화(20·CJ), 그리고 로라 데이비스(잉글랜드)와 함께 10시33분 1번홀에서 경기에 나서고 김미현과 3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희원(28·힐라코리아)은 10시 정각 10번홀에서 김주미(22·하이트팩주), 홀리에타 그라나다(파라과이)와 티샷을 날릴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세리

한국 여자배구 ‘AG 모의고사’

한국 여자배구가 카타르 도하아시아대회를 앞두고 세계무대에서 모의고사를 치른다.

김명수 감독이 이끄는 여자배구 대표팀은 31일 도하에서 개막될 2006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29일 오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한다.

한국은 24개팀이 4개조로 나뉘어 펼쳐지는 예선에서 A조에 편성돼 다음 달 5일까지 코스타리카, 폴란드, 대만, 일본, 케냐와 차례로 맞붙는다.

예선을 통과하면 11월8~12일 16강전을 치르고 같은 달 15일부터 이틀간 오사카에서 12강전과 순위결정전을 갖는다.

31일 세계선수권 대회 참가

신인 김연경 등 기량 점검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랭킹 8위인 한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조직력을 완성해 12월 아시아대회를 철저히 대비한다는 각오다.

프로배구 2005~2006 시즌 여자부 신인왕과 최우수선수(MVP)에 빛나는 ‘거포’ 김연경(18·흥국생명)이 지난 5월 무릎수술을 받은 뒤 처음 출전하는 대회여서 이전 기량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한유미(24·현대건설)·송이(22·도로공사) 자매가 나란히 주전 레프트 공격수로 출전해 매서운 스파이크를 날리고 황연주(20·흥국생명)는 코트 오른쪽을 담당한다.

지난 9월 초 끝난 그랑프리 세계대회에서 과감한 스파이크로 인상을 남긴 ‘기대주’ 배유나(17·한일전산)는 레프트와 라이트를 오가며 백업요원으로 뛴다.

세터 김사니(25·도로공사)와 한수지(18·근영여고)가 볼배급을 맡고 정대영(25·현대건설), 김세영(25·KT&G), 김지현(22·도로공사)이 코트 중앙에서 블로킹 벽을 쌓는다.

김해란(22·도로공사)과 남지연(23·GS칼텍스)은 리베로로 활약한다. 예선 A조에서 일본(세계 7위), 폴란드(세계 9위), 대만(27위)이 만만치 않은 상대지만 한국은 16강에 무난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류현진-다승·방어율·탈삼진 1위



오승환-47세이브 ‘아시아 최다’



이대호-흥련·타율·타점 석권

프로배구 12월23일 개막

KOVO, 시즌 일정 확정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송파구 방이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2006-2007 시즌 일정을 확정, 공식 발표했다.

2006-2007 정규리그는 카타르 도하 아시아대회가 끝나는 12월23일 개막해 내년 3월 14일까지 80여일간 열린다.

공식개막전은 12월24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에서 남자부 현대캐피탈-삼성화재, 여자부 흥국생명-KT&G의 경기로 펼쳐진다.

남자 6개팀(현대캐피탈, 삼성화재, LG, 대한항공, 한국전력, 상무)과 여자 5개팀(흥국생명, 도로공사, KT&G, 현대건설, GS칼텍스)이 참가해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지난 시즌보다 한 라운드 적은 6라운드, 150경기(남자부 90경기, 여자부 60경기)를 치른다.

내년 2월17~26일 열린 다섯 번째 라운드는 서울에서 중립경기로 진행되며 3월1일에는 울스타전이 벌어진다.

3전2선승제인 플레이오프는 2007년 3월 17, 18, 20일에 열리고 5전3선승제인 챔피언 결정전은 같은 해 3월24일부터 4월1일까지 펼쳐진다.

‘남자배구 거포’ 이경수

29일 국가대표팀 합류

한국 남자배구의 ‘거포’ 이경수(27.LIG)가 뒤늦게 국가대표팀에 합류한다.

LIG는 왼쪽 발목 인대와 오른쪽 어깨 부상 때문에 재활을 해왔던 이경수가 29일 태릉선수촌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LIG 관계자는 “이경수 선수가 정상 컨디션은 아니지만 태릉선수촌에서 체계적인 재활이 가능하고 아시아대회를 노리는 대표팀 전력에 도움이 되도록 대응적으로 합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6 세계선수권대회(11.17~12.3.일본)와 도하 아시아대회(12.1~15)에 출전할 남자 대표팀의 골격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MVP 양보 할 수 없다”

KBO, 최우수 선수 후보 3명 확정

KIA 한기주 등 5명 신인왕 후보에

‘거물 루키’ 류현진(19·한화)과 ‘도종 거포’ 이대호(24·롯데), ‘특급 소방수’ 오승환(24·삼성)이 올 시즌 프로야구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후보로 떠올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MVP 후보 3명과 최우수 신인선수 후보 5명을 확정, 발표했다.

시상식은 다음 달 2일 오후 1시30분 중구 태평로2가 서울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리며 야구 기자단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MVP는 2천만원 상당의 순금 트로피, 신인왕은 트로피와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수여되는 MVP 후보에 류현진과 이대호, 오승환 등 3명이 올랐다.

또 신인왕은 류현진이 타이틀을 사실상 예약한 가운데 장원삼(현대), 한기주(KIA)와 중견 신인 우규민(LG), 이종욱(두산)이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올해 입단한 류현진은 두드러진 배짱과 싱싱한 왼쪽 어깨에서 뿜어져 나오는 최고 시속 150km의 강속구를 앞세워 다승(18승)·방어율(2.23)·탈삼진(204개) 각 부문 1위에 올라 15년 만에 투수 트리플 크라운 위업을 이뤘다.

류현진은 또 지난 2002년 김진우(KIA)가 보유하던 종전 한 시즌 신인 최다 탈삼진기록(177개)을 갈아 치워 역대 열 번째이자 최연소 ‘200이닝-200탈삼진’ 클럽에 가입해 신인기록을 새롭게 썼다.

타이 4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공격 부문에서 최고의 방망이 실력을 뽐낸 이대호도 무시할 수 없는 MVP 후보다. 이대호는 리딩 히터(타율 0.336)를 차지하며 홈런(26개)과 타점(88개), 장타율(0.571) 각 1위에 올라 지난 1984년 이만수(SK 수석코치) 이후 22년 만에 타격 3관왕(홈런·타율·타점) 위업을 이뤘다.

또 오승환은 올해 47세이브를 수확, 일본프로야구의 이와세 히토키(주니치)가 지난 해 작성한 아시아 최고기록(46세이브)을 경신하고 신기록을 수립했다.

특히 류현진과 오승환은 한국시리즈 무대에서 선발투수와 마무리로 격돌해 남은 경기 활약에 따라 기자단 투표로 결정되는 MVP 투표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